

“어린이 포교 제2라운드”

토요 휴업일 확대따라 부산 불교계 대책 마련 분주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불교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산 불교계는 발빠르게 주말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흥법사의 어린이 요리교실.

동원, 부산시교육청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흥법사 요리교실 · 여여선원 선제초 등 인기 포교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 인식 변화 요구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교색을 배제한 제2의 종교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을 만큼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아이들을 볼드는 일은 각 종교계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시범적으로 매일 한차례 실시되고 있는 토요휴업일이 내년부터는 월 2회로 확대되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갈 곳을 찾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 아이들을 어느 종교에서 포용하는가는 곧바로 포교와 직결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부산 불교계가 주

5일 수업제에 맞춰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발빠르게 개발·시행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사단법인 동원(이사장 지현이 중심이 돼 15개 사찰에서 부산시교육청과 연계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흥법사의 경우 9월부터 매일 넷째 주 토요일 초등학생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연다. 일요일 어린이법회와는 별도로 주5일 수업제에 맞춰 새롭게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 아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끌고 이끈다. 매 프로그램마다 50~90명 아이들이 오색인절미, 김치, 매주 등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흥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 새로운 대안 교육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흥법사 외에도 여여선원이 선제초와 다도, 관음사가 자연과 함께 하는 숲체험을, 금전선원이 뮤지컬 체험 등을 마련하고 토요일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결같이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되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절의 문화를 몸으로 익히게 만들며 포교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만만찮다. 60여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토요일 프로그램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동원은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동원은 전국 어디든 토요일 프로그램 시행을 원하는 사찰에게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도 지원하고 있다.

종단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 2007년의 주5일 수업제가 불교계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고 그에 따른 스님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발사 주지 연수에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주5일 수업제에 발맞추는 프로그램 개발은 어린이 포교의 제2라운드라고 할 만큼 시급한 문제"라며 "대형 교회와 여타 종교의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포교 일선에 있는 스님들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상 열자”

포항사암련 1080정진대법회 봉행

정장식 포항시장 참석 참회

종교편향으로 물의를 빚었던 포항시 정장식 시장이 포항사암련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 다시 한번 불교계에 용서를 구했다. 12월 3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1080정진대법회(사진)에 참석한 정 시장은 불자들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부덕의 소치로 불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법회를 통해 용서와 화합으로 화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회주최측인 포항사암련합회는 "종교편향문제는 지역사회의 악한 불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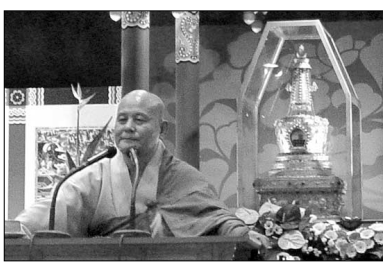
문"이라며, "지역불교도들의 불심을 강화를 위해 범불교대회에 정신을 이어 매년 1080 정진대법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2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친견 공덕으로 번뇌 소진되길”

불지사리 부산친견법회 입제식

부산 백스코에서 20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청 불지사리 부산친견법회 입제식이 12월 8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스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 불지사리 부산친견법회 봉행위원장 혜종 스님 등 3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대성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부산에 온 것은 2천만 부산불자들의 원력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더 믿고 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지사리 부산친견법회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 친견이 가능하다. (051)852-9062 천미희 기자

마하부다 구미보현의 집

김장 담그기 · 무료진료



"한국 김치 정말 맛있어요!! good!!" 12월 4일, 경북 구미 외국인 근로자쉼터 마하부다 구미보현의집(대표 진오)에서 열린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김장담그기 체험행사'가 떠들썩하다(사진).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100포기. 지난 10월 16일 합동결혼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 부부와 이날 결연을 맺은 어머니들, 금오중 합사회복지관의 개미봉사단원 등 약 70여명

이 모여 김장담그기 노하우 전수는 물론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3~4포기씩 포장했다. 한편 8년째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온 대구 달성군 보림사(주지 선주도 12월 5~7일 3일간 김장 1500포기를 담아 230가구에 전달했다. 배지선 기자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취임 진산식은 주민잔치마당으로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은 12월 4일 대웅전 앞에서 신임 주지 진산식을 봉행하고 선암사 주민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그동안 장례식장 건물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선암사가 신임 주지 진산식을 계기로 주민들과의 화합을 모색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이날 진산식에는 조계종 원로위원 지해·영주암 회주 정관·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설동부 부산시교육감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산림 입제 30일까지 27명 대덕 스님 법문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2~30일 열리는 화엄산림 법회의 입제 법회를 12월 2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입제식에서 초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꽃 중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보살만행의 꽃을 활활 피우기 위한 정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12월 11일 월하 대종사 추모 2주기 법회를 봉행했다. (053)381-1288 천미희 기자

대불련 부산동문회 40주년

대불련 부산동문회(회장 전광규)는 11월 7일 코모도호텔에서 각목 스님을 초청법사로 대불련 40주년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대불련 동문 100여 명은 이날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불련 지원과 동문회 활성화를 새롭게 다짐했다. 한편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12월 20일 오후 7시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 법당에서 총동문회 '자비실천의 밤' 행사를 갖는다. 천미희 기자

도천 스님 시신 연구용 기증

부산 미통사의 도천 스님이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12월 3일 세상을 떠났다. 1999년 3월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 본부에 서약한대로, 스님의 시신은 곧바로 동아대의학원 의과대학으로 인도됐다. 생전 스님은 신장병 어린이들이 전국 도보순례를 계획했었다. 천미희 기자

법혜 스님 논문 출판기념식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의 논문 <문화본 능엄경 연구> 출판기념식이 12월 6일 대구프린스호텔에서 열렸다. <문화본 능엄경 연구>는 능엄경 성립사 연구에 근거를 제시한 공로로 11월 29일 한글일문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통도사 주지 지성, 대구불교 방송사장 법소, 조계종포교원장 압도 스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한국전통 조형미 갖춘 걸작”

문화재청, 범어사 일주문 보물 지정 예고



범어사 일주문인 조계문(사진)이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12월 6일 지정 예고 사유에서 "범어사 조계문은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의 가치와 함께 모든 구성 부재들의 적절한 배치와 결구를 통한 구조적인 합리성 등이 시각적으로 안정된 조형 및 의장성을 돋보이게 한다"며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하여

우리나라 일주문 중에서 훌륭한 걸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어사조계문은 초석위에 목조 기둥 2개를 세우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일주문과는 다른, 자연 초석위에 긴 석조 기둥과 짧은 목조 기둥을 이어 붙인 4개의 기둥에 의해 3칸으로 구성된 독특한 건축적 양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범어사 조계문은 광해군 6년(1614년)에 최초 건립됐다고 전해지며, 1993년 문화재연구소 실측조사때 여간 종도리에서 발견된 목서명에서 속중 20년(1694년)에 중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현종 7년(1841년) 중수 및 단청작업이 이루어진 뒤 1983년 해체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미희 기자

2006학년도 특차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edu.cn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선 80명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명점 3.5 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5년 12월 20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com.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칼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대비법 요/베개

원인모름
오랜통증

난치병
치해법

주무시
면서편
안하게
치료완

02/782-0022

*당뇨로 인한 신경과민과 기력이 쇠약해져서 항상
얕은 잠에 시달리던 것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환자: 박영민 (60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수년 넘게 신경 안절부절 복용하던
극심한 불면증/교혈암에서의 발음,
범세 육~저는 기묘, 그야말로 속연입니다.*
환자: 김민준 (45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관절염이 심해 정상 생활이 불가능 했어요.
베개속을 쓰구부터 아파서 깨어나는 일 없이 좋아졌습니다.*
환자: 최영희 (55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저렴한 두통의 요통이 다 사라져 수년간 무감각,
느껴지던 제 몸이 날아갈 듯 시원합니다.*
환자: 이영희 (50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